

제 86 호

연중 제 16 주일

(강림 후 6)

1974. 7. 21.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합승권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03498)



【강론】

작 사랑

김 환철 신부

한편에서 못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데 상대방에서는 전연 무관심(無關心)할때, 사랑하는 측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랑을 작사랑이라 한다면, 정녕 하느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작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다.

매일 매일의 일용(日用)할 양식, 자유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상당한 재산까지도 배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상처받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셨거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보답은 커녕 작사랑마저 외면한채 허영과 방종으로 물질을 우상화(偶像化)하여 하느님을 배신(背信)하고 있으니, 만일 하느님의 사랑이 미움되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저버리신다면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첫머리에도 “만일 하늘을 거스려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곳이 없다.”는 말이 있다.

지난주일 복음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였다. 이 계명(戒命)은 절대명령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따를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있어 하느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된다.

사도(使徒) 성 바오로는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작사랑과는 달리 진정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모한 사실을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누가 감히 나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느냐? 창절이냐? 혈벗음이냐? 죽음이냐?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그 밖의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사도 바오로는 뒤늦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남이지 그리스도에게 흠뻑 반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속에 그냥 미쳐버렸다.

고대 회람인들은 사랑이란 말을 육(肉)적인 사랑과 영(靈)적인 사랑 두가지로 구별해서 사용해 왔다.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을 육적인 사랑 즉 이성간(異性間)의 사랑이라 말한다면, 아가페적 사랑은 초자연(超自然)적 사랑 다시 말한다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말한다.

아가페적 사랑이야말로 가실줄을 모른다. 말씀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끊어지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아가페적 사랑은 끝까지 남을 것이다. 이것이 곧 인간이 소망(所望)하는 바 최고의 목적이요, 행복이요, 극락이요, 천국이요.

(전동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나는 자진하여 당신께 제사를 올립니다. 당신 이름 중의심을 야훼님 나는 찬미하리이다.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창세기 18:1-10, 경향잡지 7월호 P. 69) 주여 당신 종을 그저 지나치저 마옵소서

□증계송 ①주여 당신 장막에 묵음이 누구오리까? 길미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는 이, 무죄한 이 다짐세라 뇌물 받지 않는 이오니, 이같이 하는 그 사람은 쓰러질리 없으리라. ②

□제2독서 (골로사이 1:24-28, 성서 P. 457) 영원으로부터 감추어 있던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들어났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착하고 착한 마음 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이 결실을 맺는 사람은 복되도다. 알렐루야.

□복음 (루가 10:38-42, 성서 P. 157) 마르타는 예수를 자기 집에 영접해 드리고, 마리아는 참 좋은 뜻을 택했다.

□신자들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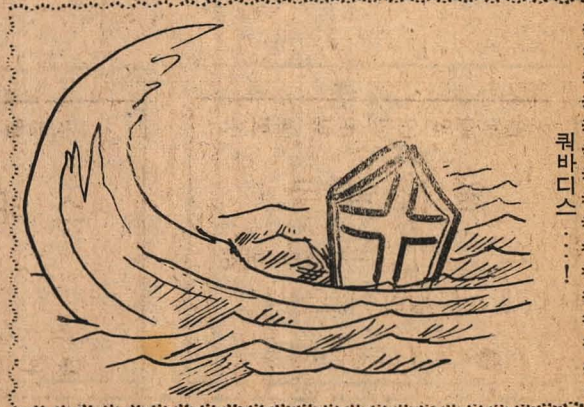
1. 일치를 원하시는 주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목자들 교황, 주교, 사제들과 모든 수도자, 평신자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소서. ①주여.....
 2. 진리와 정의이신 주여,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이 진리와 정의를 떠나가는데 앞장서게 용기를 주소서. ②
 3.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주여, 형제들끼리 서로 이해하게 하소서. ③
- + 주여 비오니, 우리의 필요한 바를 아시는 당신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의면하지 마시고 은총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주... ④아멘

(3) 성찬의 전례

□성찬식 □봉헌
□영성체송 들어라,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되리라.

(4) 폐회식

* 순정이 산책 *



퀴바디스...!



기 도

김 재욱<라파엘>

고요히 목주를 굴립니다.
불타던 사랑일랑
가슴에 안으며 -

여린 생명의 숨결로
밤을 지새는 땅 위에
생수 솟는
열을 주옵소서!

파라솔을 펴듯 마음을 펴고
창문마다 서린 정성
못내 그리려니
애마른 대지에 꽃을 피옵소서!

열빛이 쏟아지는 거리
열풍도 걸음을 멈추고
은혜로운 성혈을 우러르며
주를 향하던 날,

푸른 나래빛으로
허허한 창공을 향해
비상하던 날,

꽃술을 같은 마음의 자락에
별빛이 쏟아지던 날,

성흔을 감싸고
제전에 스셨으니
노래로 엮어진
찬미를 받으소서!

영원의 땅 위에
고별의 잔일랑 생각증지를 말며....

<시인, 해성 중·고 교사>



하루의 명상

김 준식(라우렌시오)

지금은 별들이 내리고 있는 조용한 밤입니다. 하루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온누리가 잠들기 전 나는 은하수 물결의 자장가를 들으며 오늘 하루 생활을 들여다 봅니다. 눈물이 있는가하면 웃음이 있었습니까. 미움이 있는가하면 사랑도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가버린 오늘 하루 시간은 태양 아름답게만 꾸며지면서도 아쉽기만 합니다.

모든것은 변합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산골짜기에서 내리는 지냇물엔 언제나 새물이 흐르듯 낡은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옵니다. 그런때도 나는 그렇지 못한 것같이 격정입니다.

산 밑에 그늘이 지기 시작하면 밤이 찾아온다는 황혼의 소식입니다. 그라노라 하면 어둠이 태양을 잠꾸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황혼은 있습니다. 어둠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머지않아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생각없이 있을때 살짝 노크할 것이고 이내 찾아올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하는 성경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때도 우리는 흔히 옛날 중국의 진시황제처럼 불로초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뉘우칠줄 모르고 사랑이 있어도 느끼질 못합니다. 마음의 등대를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을 모르고 양심을 잃고도 찾을 줄을 모릅니다. 하기에 이 세상을 바르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려워수록 힘들고, 힘들수록 귀하고, 귀할수록 높으며, 높을수록 애써 구해야 합니다. 뉘우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저 광막한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희망이 있는 생활들은.....거기엔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고 끝없는 행복도 따릅니다.

지금은 못견디게 괴로웠던 하루의 피곤을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하루엔 부끄럼이 없었습니까? 혹은 벅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까? 모두 눈을 감고서 이 귀중하고도 중요한 명상의 시간을 지냅니다.

연못에 담겨진 썩은 물에선 악취가 풍겨도 그속에서 피는 연꽃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풍겨오듯이, 이 세상이 썩고 사회가 무너지고 내일 당장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는 깨끗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 땅에 묻히는 그 시각까지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바른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눈천림 하얀, 하이얀 길을 걸어 가야 하겠습니다.

<김계본당 밀알회원>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②4577)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③ 6094

☆ 추억의 집 ☆

푸른 사진관

이준영(모세)

○전동, 성모병원 건너편

전화 ② 6059

□ 양 지 쪽 □



두 귀(耳)

한 상 갑

옛부터 귀가 큰 사람은 귀인이라 일컬어왔다. 관상학을 전공한 바도 없기에 어찌서 그런가가 항상 궁금해오다 이제 나름대로 해답(?)을 얻어내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만 살 수는 없다. 가정이라는 기본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형태이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거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에는 대화라 따르게 된다.

인간의 대화 수단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만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듣는다. 여기에 소위 「체어(體語, body language)」라는 것이 등장한다. 그런데도 사람은 보통으로 입으로만 말하고 귀로만 듣는 것으로 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좋다. 더 큰 문제는 말만 하고 들을려고는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우리의 신체구조는 참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신체구조가 입은 하나이고, 귀가 들인테도 그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입이 서너개 있어야 될텐데 입은 분명히 하나, 뿐이다. 그 하나뿐인 입으로 먹고 말해야 함을 볼때,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같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니까.

공동생활을 참으로 잘 하려면 우리는 서로 열심히 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개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필요로 한다. 그 조직은 지도자와 일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의 대화에 문제가 있다. 일반 구성원은 비교적 지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지도자의 소리가 양심과 정의에 어긋나는 소리만 아니면 말이다.

문제는 아랫 사람의 소리가 위까지 올라가지 않는 데에 있다. 무언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묵살되어 버리는 것이 큰 문제이다. 몇 번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랫사람들의 소리는 잠잠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리는 일방 통행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옛부터 선정(善政)을 한 임금들은 미복(微服)을 하고 백성들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기에 애를 쓴 모양이다.

그렇다. 남의 소리를 즐겨듣는 귀가 큰 사람은 귀인일 수 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시오”(루가8:8)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숲정이 편집인>

요심이 (53) 김병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몇배 더 잘 살
수 있다.

✽성 바오로 서원
T.2~7398

이 주간의 성경

- 22<월> 성녀 마리아 막달레아 기념
독서(고린트 후서 5: 14-17, 성서 P.411)
복음(요한 20: 1, 11-18, 성서 P.259)
- 23<화> 독서(미케아 7: 14-15, 18-20)
복음(마태오 12: 46-50, 성서 P. 29)
- 24<수> 독서(예레미아 1: 1, 4-10)
복음(마태오 13: 1-9, 성서 P. 29)

- 25<목> △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독서(고린트 후서 4: 7-15, 성서 P.409)
복음(마태오 20: 20-28, 성서 P. 48)
- 26<금>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
독서(집회서 44: 1, 10-15)
복음(마태오 13: 16-17, 성서 P. 30)
- 27<토> 독서(예레미아 7: 1-11)
복음(마태오 13: 24-30, 성 P. 31)

☆집필도장청부 ※ 고급실크벽지☆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업사

● 동문 네거리(풍남동 1가 17)
전화 ⑤986
임 도민고(정원)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피자, 잡살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미미 제과소
상업은행 옆 (⑤6589)

미미 예식장
남문 옆 (⑤3915)
김민주(가타리나)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씨관집

◎ 교우들에게 특별엄가 봉사 ◎
최병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⑤ 6691 교환 85번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V 22, 7.30 초



1. **지학선 주교님(원주 교구장)**, 23일 오전 9시 30분에 재판, 주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주 교구청 사무국장 양대석 신부는 지주교님께서 지난 7월 15일부로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의 공소장을 받으셨다고 전하며, 여러 성직자, 수도자, 교형 자매들의 열렬한 기도와 끊임없는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74년도 각 교구 하계 푸르실료에 각 신심단체와 뜻있는 교우들은 빨랑까(영적 꽃다발)을 보냅니다.
(보내실 곳 : 전주시 진북동 전주 해성 중학교 내 조성호 앞)

광주(여성 제1차) 7월22-25일	대전(남성 제7차) 8월 1-4일	춘천(남성 제7차) 7월25-28일
대전(여성 제3차) 8월 6-9일	춘천(여성 제1차) 8월 1-4일	대전(남성 제8차) 8월15-18일
대전(남성 제8차) 8월 8-11일	서울(남성 제21차) 8월22-25일	원주(남성 제14차) 7월31-8월3일
서울(여성 제8차) 8월15-18일	대구(남성 제14차) 8월 1-4일	부산(남성 제17차) 8월28-31일
청주(여성 제1차) 8월 1-4일		

*각 교구의 하계 푸르실료 성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영적 꽃다발을 엮어서 보내주시시오
 ①미사 참례()번 ②영성체()번 ③성체조배()번 ④목주의 기도()번
 ⑤성로 선공()번 ⑥화살기도()번 ⑦주모경()번 ⑧두팔기도()번 ⑨기타
3. **교구 가톨릭 대학생 제6차 지역대회 및 하계 농촌 봉사활동**
(7월22-29일, 무주군 무풍면 상오정 부락에서)
4. **교리교사 하기 연수회** (8월18-22일, 송광 "자연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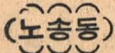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이 복 석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고등부 하기 연수회 (7월28-31일)
희망자는 학생회에 연락바람 (접수는 25일까지)
3. 첫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5시)
4.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지난 주일 봉헌금 39,528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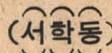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꼬미씨움 회합** (오늘 오후 1시반, 전동)
2. **본당 살림, 운영난에 봉착**
미납된 교무금의 완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신용 협동 조합 창립 총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살림을 운택하게 하는 신용조합의 조합원이 됩시다.
□ 지난 주 성미 1말 8되, 누계 291말 8되
지난 주일 현금 13,241원, 감사합니다.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할 승 철
 사도 회장 조 해 형

1. 부녀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에)
3. 미납된 교무금을 속히 납부합니다
4. 주일 봉헌금은 정성껏 준비, 봉헌합니다
5. 본당 신축 현금, 감사합니다
중노 1가 신성례, 최동배(각 1천원), 정유덕(500원)
이름 밝히지 않은 학생 (1천원)
□지난 주 신축기금 3,500원, 누계 1,464,997원
지난 주 신축 성미 1말, 누계 187말 5되
지난 주일 현금 14,985원, 감사합니다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어린이 첫고해 신청을 빨리 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첫고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2. **본당에 상주하실 부제님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3. **교무금 완납하여 본당 운영난 타개합니다.**
4. **중·고 학생 하기 특별교리를 신학생이 지도.**
학생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5. **상관 아동 교리** (매주 미사후, 신학생이 지도)
부모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난 주일 현금 9,746원, 감사합니다.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 중 근
 사도 회장 김 중 환

1. **본당 신부님 가정 방문**
22(월) 덕진 1.3.4.6반. 26(금) 팔복 1.3반
23(화) 덕진 2.5.7반. 1(목) 팔복 2.4반
24(수) 금암 1.2.3반. 2(금) 송천동.
25(목) 금암 4.5반
① 공소는 8월 중에 방문하겠음.
② 구역장, 반회장, 교리 교사의 협조 바람.
2. **예비신자 특별 면담** (회의실에 모여 주세요)
3.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4. **하기 방학중 아동 특별 교리, 학생 연수회**
① 국민학교 아동 교리 (8월 5~9일)
② 중·고등 학생 연수회 (7월 29~31일)
□ 지난 주일 현금 7,736원, 감사합니다.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정 승 재
 사도 회장 송 재 진

1. **주일학교 하기 방학 교리** (8월 5-14일)
금주 1일 교장 안득수(마리오)선생님
2. **학생 미사** (토요일 오후 5시반, 중·고·대)
3. **꼬미씨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4. **중·고 학생 하기 수양대회**
① 장소 : 마포 해수욕장, ② 기간 : 7월 28-8월 1일
③ 참가비 : 1000원, ④ 접수 : 학생회장(이종환)
5. **신용조합, 8월 15일부터 위약금 제도 실시**
* 금주의 순정이 은인 *
사도회 부회장 유 경 옥(안드레아)
감사합니다.
● 애령회 특별 현금 있음.
□ 지난 주일 현금 41,283원, 감사합니다.

지학순 주교와 정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합동미사

입당노래 : 성가 111번 **한많은 근심에**

- | | | | |
|------|--|----|---|
| 1절 | 한많은 근심에 탄식만 하오며
십자가 우러러 구슬피 우오니
인자한 우리 구세주 내 영혼 위로하소서 | 2절 | 내영혼 병들어 괴로워 하오니
고통을 덜으사 위로해 주소서
영혼의 문은 추한때 네 괴로 췌어주소서 |
| (후렴) | 오주 예수 영혼의 빛이여
죄인을 불쌍히 보사 위안해 주소서 | | |
| 3절 | 자애의 천주여 네 괴롭 받으사
당신의 고통에 합하여 주소서
오상의 흔적 그안에 이몸을 감춰 주소서 | 4절 | 진실한 안식이 예수께 있으니
근심과 고통에 예수께 바라자
성심의 타는 불로써 이맘을 덥게 하소서 |

독서 : 로마서 8장31절~39절

총계송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1. 당신은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이에게는 빵을 주시도다. 주님은 사로잡힌 이를 풀어 주시도다◎
2. 주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은 은억눌린 이를 일으켜 주시며,
주님은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도다. 주님은 나그네를 지켜주시도다. ◎
3. 고아와 과부를 길러주시라, 약한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시도다.
야훼님 영원히 왕하시리니, 시온아 네 하느님 세세에 계시도다◎

알렐루야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를 지성소에서 찬송하며, 그 웅대한 창공에서 찬미할지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음 : 마테오 10장 16절~39절

신앙고백 : 성가 23번 **나는 굳이 믿사오리**

- | | | | |
|----|--|----|--|
| 1절 | 나는굳이 믿사오리 진실하온 주의말씀
성세때에 드린맹세 충실하게 지키리다
나를특히 간택하사 성회안에 부르시니
진심감사 하나이다 | 2절 | 주의계명 착히지켜 바른길로 나가리다
주여세상 풍파중에 나를 보호하옵소서
나는 주의의자오라 내게 의탁하옵느니
영원상속 주옵소서 |
|----|--|----|--|

봉헌 : 성가 57번 **예수 마음**

(후렴) 예수마음 겸손하신자여 내마음을 내마음을

- | | | | |
|----|------------------------------|----|----------------------------|
| 1절 | 열전케 하사 네 성심과
네 성심과 같게 하소서 | 2절 | 잡아당기사 네 성심에
네 성심에 결합하소서 |
| 3절 | 차지하시와 네 성심에
네 성심에 보존하소서 | 4절 | 변화케하사 네 성심과
네 성심과 마꿔주소서 |

성가 44번 세상에 참된 행복

- 1절 세상의 참된행 -복 주 예수 여기계시네
 2절 천주의 고향이시라 세상의죄를 사하고
 먼 주의행상 그속에 성체 성혈 감추엿네
 천상의 은혜 베풀어 우리영혼 기르시네
- 3절 크시도다 그의사랑 영혼 양식 되시도다
 예수성체 영하는자 영원 무궁 살리로다

영성제송 : 행복하여라.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만족하리니,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받을때에,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성가 42번 주여 어서오소서

- 1절 주여 어서 오소서 내마음에 오소서
 2절 예수없이 내영혼 어찌능히 살리오
 에타게도 바라니 어서빨리 오소서
 이렇듯이 애원함 굶어들어 주소서
- 3절 온세상의 모든분 만족함이 없으리
 4. 주 내게 임하시기 한번부당 하오나
 주의사랑 내맘에 만족하고 남도다
 한말씀만 하소서 조찰하여 지리다

성가 43번 평화의 주

- 1절 평화의 주시며 믿는자의 위로여
 (후렴) 아! 뉘나를 도와서 열절하온 정성과
 하늘의 광채도 네 앞에 흐리나
 불과같은 혀와뜨거운 입술과
 친묘한 성사에 숨어 계시오니
 천신의 소리로 내주 성체 영함을
 이같이 큰사랑 어이 값으리까
 족히 찬송하며 찬송하게 할꼬
- 2절 우리두 영혼이 이미 결합하오매
 3절 주여 귀양소를 떠나게 해주시고
 나는 사랑이요 사랑 뿐이로다
 기록한 베품에 감추어 주소서
 네애정 내애정 네영신 내영신
 이세상 목숨은 잠간새 지나니
 네생명 내생명 하나 되었도다
 영원 무궁세에 사랑케 하소서

퇴장노래 : 성가 127번 복자 찬가

- 1절 장하다 복자여 주님의 용사여
 (후렴) 무궁화 머리마다 영롱한 복자시여
 높으신 영광에 불타는 넋이여
 승리에 빛난 보람 우리에게 주옵소서
 칼아래 슬어져 백골은 없어도
 푸르른 그충절 찬란히 살았네
- 2절 기우는 정의의 목숨을 건지려
 3절 한몸을 헐어서 백두산 모으고
 주릴과 추위와 죽음과 싸우며
 선혈을 쏟아서 동해를 이루어
 겨레의 힘으로 찾아온 진리를
 무궁한 신앙의 나라를 닦으신
 곧세게 곧세게 피로서 지켰네
 크신공 하늘에 영원히 빛나리

천주교 전주교구